

# 대학 교양 중국어 운영 현황과 내실화를 고려한 현실적 제언 탐색

- 충남대학교를 중심으로

성나영\* · 서연주\*\*

## 목 차

1. 들어가며
2. 충남대학교의 교양 중국어 과정 운영 현황
  - 1) 「중국어」의 개설 현황
  - 2) 「중국어」에 대한 학생 및 교수자의 평가
  - 3) 기타 지방 거점 국립대와의 비교
3. 교양 중국어 내실화를 위한 현실적 제언
  - 1) 교양 중국어 활성화의 모범 사례
  - 2) 교양 중국어 내실화를 위한 제언
    - (1) 학기 단위 주제 중심 수업
    - (2) 블렌디드 러닝의 활성화
    - (3) 상호문화이해능력 강화 교육
4. 나가며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 교양 중국어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내실화'를 위한 현실적 제언 탐색을 목표로 하였다. 21세기에 들어 중국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더욱 뻗어 나가면서 대학 교양 수업에서의 중국어를 어떻게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활발해졌다. 그러나 기존에 제기되었던 개선 방안들은 교양

\* 충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시간강사(제1저자)

\*\* 충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중국어의 현실적인 운영상황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요원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충남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 「중국어」 상황을 점검하고 기타 지방 거점 대학교의 현황과 모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교양 「중국어」 수업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학기 단위 주제 중심 수업’, ‘블렌디드 러닝의 활성화’, ‘상호문화이해능력 강화 교육’을 제안하였다. 이는 차후 상술한 세 가지 방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업설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로 이어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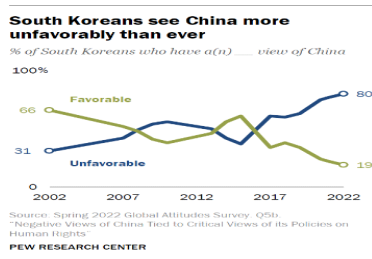
**키워드:** 교양 중국어, 활성화, 내실화, 학기 단위 주제 중심 수업, 블렌디드 러닝, 상호문화이해 능력

##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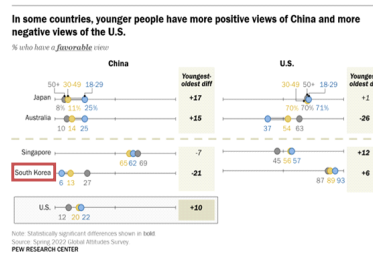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 양국은 1992년 ‘우호협력관계’에서부터 19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관계’와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거쳐 2008년 후부터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 사이 중국은 미국과 비견할만한 G2 국가로 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으며, 초인접국인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2016년 사드 배치와 이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 코로나 팬데믹, 중국의 경제 급부상에서 비롯된 경쟁의식과 무역 갈등, 한복과 김치 원조 문제 등의 문화 갈등은 양국 간 부정적인 정서를 가중시키고 있다. 2022년 6월 퓨리서치센터가 전 세계 19개국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는데, 그 가운데 「그래프 1」에서처럼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견해는 80%나 되었다.<sup>1)</sup>

1) Negative Views of China Tied to Critical Views of Its Policies on Human Rights,



「그래프1 “중국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한국인”」



「그래프2 “중국과 미국을 바라보는 연령별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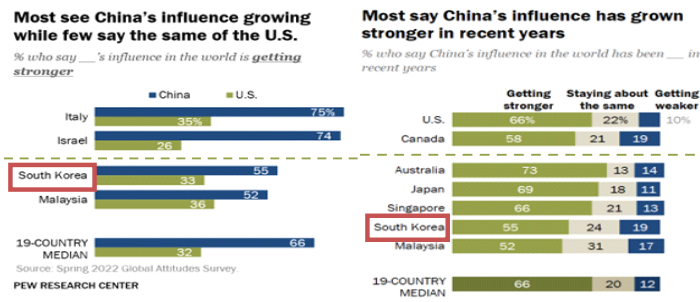
이때 유의할만한 점이 있는데, 「그래프2」에 나타나듯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젊은 층이 중국에 대해 더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반면, 유독 한국만 노년 층보다 젊은 층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sup>2)</sup>

이처럼 한국에서 반중, 혐중 감정이 심화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강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 아래의 「그래프3」, 「그래프4」를 보면 19개국 응답자의 80%가 최근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고 응답했고, 66%는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보다 강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의 응답 역시 중국의 성장력이나 영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sup>3)</sup>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2/06/29/negative-views-of-china-tied-to-critical-views-of-its-policies-on-human-rights/>

2) MZ세대의 반중 감정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고 있다. 이는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연령층별 호감도 조사로, 감정온도 0도-100도 가운데 중국과 일본에 대한 감정 온도가 각각 평균 24.8도, 24.6도로 가장 낮았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20대~30대(MZ세대)의 감정 온도가 매우 낮았다. 이동한, 「여론 속의 여론,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제137-1호: 2021 한국리서치 13차 정기조사(7월 1주)-국정지표조사」, 『한국리서치』 2021, 25-29쪽 참조. (<https://hrcopinon.co.kr/report?vid=210> 2023년 1월 9일 검색.)

3) Across 19 countries, more people see the U.S. than China favorably – but more see China’s influence growing,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2/06/29/across-19-countries-more-people-see-the-u-s-than-china-favorably-but-more-see-chinas-influence-growing/>



「그래프4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그래프3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즉, 중국에 대한 감정이 어떠한 한국인은 여전히 중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중국어에 대해 제대로 알아갈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중 양국의 교역량은 지난해 사상 최고치인 3,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수교 당시보다 50배 가까이 증가했고, 제조업을 넘어 신산업분야까지 민간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매우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sup>4)</sup> 이는 중국의 언어, 사회와 문화 등에 대한 전문가가 꾸준히 배출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며, 대학에서 중국 관련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동기 증가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MZ세대들의 반중 정서 심화는 이러한 도구적 동기를 상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근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대학의 중국 관련 교과목 개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본고에서는 대학에서 설강되는 교양 과목 중 ‘중국어’를 대상으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현상을 극복할만한 현실적인 제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충남대학교의 교양 교과목 가운데 「중국어」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2000년 1학기에 4개 분반으로 시작되었던 충남대의 교

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48646632430600> (2023년 1월 9일 검색.)

양 「중국어」는 2022년 12월 현재, 1학기는 2개 분반 97명, 1학기 1개 분반 13명으로 그 수강자 수가 최하점을 찍었다. 이는 중국 관련 수업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전국 대학의 상황을 여실히 반영한 예이기도 하다.

중국의 중요성을 인정한 만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과목명만 다를 뿐, 중국어 수업을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한 연구 결과확산이 용이 하리라 기대된다. 추후 연구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관련 교과목 개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sup>5)</sup>

## 2. 충남대학교의 교양 중국어 과정 운영 현황

본 장에서는 충남대학교의 교양 교과목 「중국어」의 개설 현황을 중심으로 하되, 충남대와 유사한 환경을 지닌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이하 ‘지거국’으로도 지칭)들의 교양 중국어와 관련한 상황을 함께 제시한다. 이를 통해 충남대의 교양 중국어 과목 개설에서의 문제와 지거국 공통의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언을 시도할 것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의 교양 중국어에 대한 최초의 정보는 2000년 1학기부터 파악 가능하다.<sup>6)</sup> 이에 2022년 2학기까지 총 46개 학기의 분반 현황 및 수강인원을 확인했으며, 2003년 2학기부터 2022년 2학기까지 총 39개 학기의 강의계획서, 2016년 2학기부터 2022년 2학기까지 총 12개 학기의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보고서를 분석했다. 또한 최근 5년 내 해당 교과를 담당해 온 교원 두 명과의 심층 대면 인터뷰 결과 역시 반영하여 연구의 세밀화를 기했다.<sup>7)</sup>

5)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와 관련한 교과목 개발 연구로 한정하고 있지만, 연구의 취지와 결과를 고려한다면, 기실 제2외국어 과목의 활성화 방안으로도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6) 확인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수강생 수는 2002년 1학기부터, 강의계획서는 2003년 2학기부터, CQI 보고서는 2016년 2학기분부터 참고했다.

7) 담당 교원 중 한 명은 본고의 공동저자이며, 나머지 한 명은 2016년 2학기부터 현재까

## 1) 「중국어」의 개설 현황

「중국어」는 개설 후부터 현재까지, 충남대학교 교양 교과목 가운데 중국어와 관련한 유일한 강좌이다. 2000년 1학기에 총 4개의 분반으로 개설되었고, 중어중문학과 소속 교원들이 해당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46개 학기 동안 해당 과목을 담당한 교원 수는 모두 14명이며, 2016년 2학기부터는 1명의 교원이 분반 수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강좌를 전담하는 중이다.

수강정원은 교수가 희망하는 대로 설정이 가능하다. 다만 「중국어」는 충남대의 교양 과정 중 일반교양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강 기준이 30명이다.<sup>8)</sup> 즉, 한 학기 최소 30명 이상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해야 안정적으로 개설이 가능하다. 어학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최소 수강인원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환경이며, 「중국어」가 입문 단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강인원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큰 문제일 수 있다.<sup>9)</sup>

또한 충남대의 일반교양 과목은 공통기초교양, 핵심교양 등과 달리,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무관하다.<sup>10)</sup> 중어중문학과 학생은 학과에서 개설하는

지 13개 학기 연속 「중국어」를 전담하고 있는 초빙교원이다.

8) 2023년 1학기부터 일반교양 폐강 기준이 20명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9) 박혜원은 학습자와 교수자를 대상으로 이상적인 수강인원을 조사한 결과, 교수자의 86%, 학습자 77%가 20명 이하를 가장 선호했고, 25명 이상에 대한 응답률은 교수자 0%, 학습자 6%에 불과했다. 임연정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강인원을 조사한 결과, 20명-30명(46.2%), 10명-20명(27.6%)을 가장 선호했다. 박혜원, 「대학 교양중국어 수업 활성화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0, 89-91쪽, 124-125쪽 참조, 임연정, 「대학 교양중국어 학습자의 학습목표 및 교과목 수요 분석 연구」, 『중국어교육과연구』 제32호,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20, 213-214쪽 참조.

10) 충남대의 교양 과정은 공통기초교양, 핵심교양, 전문기초교양, 일반교양, 특별교양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된다. 모든 학생은 공통기초교양(「기초글쓰기」, 「대학영어 1, 2」,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취업과 창업」)에서 8학점, 핵심교양에서 9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외 학과에서 지정한 전문기초교양과목이 있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2023년 현재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장 교육과정 규정 참조.

중국어 수업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양 중국어 수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에 순수하게 중국어 자체에 관심이 있거나 중국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술했듯 충남대의 경우 수준별, 단계별 수업이 없고, 입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급 수준의 중국어 교과만 개설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강의에서 이를 고려하고 있으며, 다음 세 가지 강의 목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첫째, 정확한 중국어 발음을 습득하는 데 제1목표를 두었다는 것, 둘째, 기초적인 중국어 회화 구사를 기한다는 것, 셋째, 중국의 문화와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다.

수업운영방식은 크게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대면 강의와 사이버캠퍼스를 통한 비대면 강의로 분류할 수 있다. 2011년 2학기까지는 대면 강의가 주를 이루었으나, 2012년 1학기부터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를 혼합한 블렌디드 러닝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블렌디드 러닝은 주로 주당 3시수 가운데 2시수는 대면 강의, 1시수는 비대면 강의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대면 강의에서는 강의 목표에서 제시한 제1목표인 발음과 제2목표인 회화 능력에 주력하는 경향이, 비대면 강의에서는 제3목표인 문화 이해에 주력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포착되었다.

우선 대면 강의는 교수의 강의 위주로 진행됐으며, 과밀 현상이 있는 만큼 학생 스스로의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주로 생활밀착형 주제로 구성된 의사소통 중심 기초 중국어 교재를 사용하였으며<sup>11)</sup> 각 과의 단어, 본문, 어법을 설명하는 순서로 강의를 진행했다.

말하기와 듣기 영역의 학습을 위해 특히 2017년부터 “청각 구두식 교수법”<sup>12)</sup>과 “큰소리 학습법”<sup>13)</sup>을 적용하여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큰소리로 따

11) 다락원에서 출판한 『신공략 중국어(기초편)』, 『관광중국어(입문편)』, 차이나프레스에서 출판한 『EASY 중국어 red편』, 시사중국어사에서 출판한 『신전략중국어(입문편)』, 동양북스에서 출판한 『스마트중국어 step1』, JRC북스에서 출판한 『참 쉬운 중국어1』 등이 있다.

12) 청각 구두식 교수법(Audio-Lingual Method: ALM)은 청화법이라고도 하며 말 그대로

라하는 연습을 지속하고 있으며, 읽기 영역의 학습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본문을 큰소리로 읽고 해석하는 방식을, 쓰기 영역 학습을 위해서는 교수가 판서를 하거나 인터넷 사전에서 구현되는 한자 필순 플래시를 보여주며 학생들이 한자를 직접 써보도록 유도하였다.<sup>14)</sup>

비대면 강의는 크게 교과 연계 보충 학습과 중국의 사회 문화 학습으로 구분되었다. 교수가 직접 연습문제를 풀이한 녹화 강의를 업로드하거나 중국 문화 및 사회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제공했다. 후자의 경우 중국의 사회, 경제, 문화와 관련한 시사 다큐 프로그램,<sup>15)</sup> 중국 현지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활용되었다. 이때 상호작용의 역할이 미미한 영상 강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 수강 후 간단한 퀴즈를 풀게 하거나, 간략

듣기(Audio)와 말하기(Lingual)에 중점을 둔 교수법이다. 정현선, 「효율적인 교수 학습 방법과 미래지향적인 영어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초등영어 교사의 인식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21, 12-13쪽 참조.

- 13) 『큰소리 영어학습법(평범한 사람들은 모르는 가장 단순한 영어 학습의 비밀)』(곽세운, 팝콘북스)은 저자 곽세운이 영어를 전혀 학습하지 않은 자녀 세 명을 대상으로 6개월 간 ‘큰소리 학습법’으로 영어 교육을 한 뒤 동년배 원어민 수준으로 끌어올린 비법을 소개한 책이다. 담당교수는 이 방법에 착안하여 큰소리로 본문을 낭독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했다.
- 14) 쓰기 영역의 경우 시간 제약으로 인해 본문 쓰거나 워크북을 활용한 간체자 쓰기 등의 별도 과제가 주어졌다.
- 15)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 자료에는 「뉴 노멀 뉴 차이나」, 「한중수교 20주년 - 신 중국인턴」, 「니하오 베이징 한국남편 vs 중국아내」, 「변화하는 중국, 도시에서 온 선생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첫발을 내딛다」, 「삼국의 거상 제2부 - 중국」, 「세계와 중국 그리고 21세기 - 2편 마오쩌둥의 부활」, 「신중국 60년 - 1부 중국 리더십, 공산당이 변하고 있다」, 「신중국 60년 - 2부 중국 경제, 세계를 나아가다」, 「중국, 창업현장을 가다」, 「중국발 쓰나미, 생존의 조건」, 「중국의 비밀3 - 부자가 되는 법」, 「차이나3.0 - 1부 두려운 미래, 중국 주렁허우세대」, 「한국을 넘어선 상하이, 상하이는 이제 중국이 아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요리왕국 중국」, 「계급에 따른 음식의 빈부격차」 등이 있다. 그밖에 중국의 문화와 중국인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는 『세계테마기행』, 『스트리트푸드 파이터』와 「KBS 12악방 내한공연」, 「13억 중국인 그들의 대화법」, 「문화예술 서예 1부 - 문자로 새기는 혼」, 「금단의 도시 자금성에 가다」, 「13억의 이동 대륙의 명절 귀성전쟁」, 「중국 창사시 세계 최대 중식당」 등이 있다.

한 소감문을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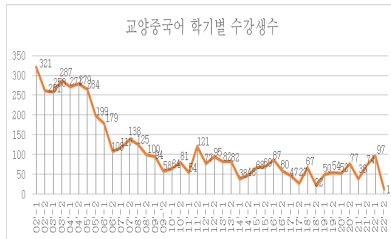
이밖에 대면·비대면 강의 모두에서 다양한 방식의 문화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매 학기 한 곡 이상의 중국 노래를 배우고, 중국 현대시나 영화를 감상하기도 했으며,<sup>16)</sup> 중국 음식 맛보기 과제를 제시하거나 강의실에서 중국의 술, 차, 간식을 맛보는 체험 시간을 가졌다. 이런 직간접적인 문화 체험은 결국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호기심뿐만 아니라, 중국과 중국어에 대한 관심 확대로까지 이어질 기회가 된다.

다만 실용성과 흥미 추구를 고려한 수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어」의 수강생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래 「그래프5」는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대의 「중국어」 수강인원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02년 1학기 321명(5개 분반)으로 시작하여 가장 최근인 2022년 2학기의 수강인원은 총 13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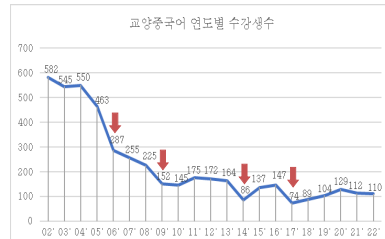
16) 노래는 발음 학습 과정에서 활용되기도 했다. 숫자 노래와 생일 축하 노래 외에도 「夜來香」, 「神話」, 「甜蜜蜜」, 「好想好想」, 「高山青」, 「月亮代表我的心」, 「今天星期几」, 「偶然」, 「學貓叫」 등 다양한 대중가요도 포함하고 있고, 감상한 영화로는 「송가황조」, 「투게더(和你在一起)」, 「인연(十面埋伏)」, 「연습곡」, 「패왕별희」, 「인재경도(人在囧途)」 등이 활용되었다.

17) 2022년 2학기의 경우, 개강 첫 주 설강 기준 30명을 채우지 못하자 폐강이 될 것을 염려한 학생들이 수강 취소를 하여 최종 13명으로 머물렀으나 꾸준히 개설된 과목이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개설 인가를 받았다. 충남대 교양 「중국어」 개설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학기별 분반 수, 학생 수, 담당교원 수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연도	학기	분반 수	학생 수	담당 교원 수	연도	학기	분반 수	학생 수	담당 교원 수
2000	1	4	-	4	2011	2	2	121	2
2000	2	5	-	4	2012	1	2	77	2
2001	1	4	-	4	2012	2	2	95	2
2001	2	4	-	4	2013	1	2	82	2
2002	1	5	321	5	2013	2	2	82	2
2002	2	5	261	5	2014	1	1	38	1
2003	1	4	258	4	2014	2	1	48	1
2003	2	4	287	4	2015	1	1	68	1



「그래프5 “학기별 「중국어」수강인원」



「그래프6 “연도별 「중국어」수강인원」

위 「그래프6」에 표시한 화살표는 연도별로 보았을 때 「중국어」 수강인원이 급감하는 시기이다. 이는 각각 2006년, 2009년, 2014년, 2017년으로, 2005년의 「반분열국가법」 제정,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립싱크 사건과 멜라민 분유 파동, 2013년 시진핑 집권 시작과 ‘중국몽’ 천명, 2016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정책인 한한령 시행으로 인한 반중 정서가 이듬해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특히 한한령 이후 실제로 한중 간 교류가 급격히 감소함은 물론 양국 간 반

2004	1	5	271	4	2015	2	1	69	1
2004	2	6	279	5	2016	1	2	87	2
2005	1	5	264	5	2016	2	2	60	2
2005	2	5	199	5	2017	1	1	47	1
2006	1	4	179	3	2017	2	1	27	1
2006	2	3	108	3	2018	1	1	67	1
2007	1	3	117	3	2018	2	1	22	1
2007	2	3	138	3	2019	1	1	50	1
2008	1	3	125	3	2019	2	1	54	1
2008	2	3	100	3	2020	1	1	52	1
2009	1	3	94	3	2020	2	2	77	2
2009	2	2	58	2	2021	1	1	38	1
2010	1	2	64	2	2021	2	2	74	1
2010	2	2	81	2	2022	1	2	97	1
2011	1	2	54	2	2022	2	1	13	1

감 정서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019년 코로나 팬데믹과 2021년, 2022년 한복 및 김치를 둘러싼 문화 원조 논란까지 불거지며 반중을 넘어서 혐중 현상으로까지 번졌는데,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대학생들이 포함된 MZ 세대의 극렬한 반감이 「중국어」의 수강인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 2) 「중국어」에 대한 학생 및 교수자의 평가

‘CQI’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중간과 기말 두 차례에 걸쳐 강의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장이자, 이에 대해 교수가 학기 말에 자체평가 및 개선 방안을 탐구하는 보고서이다.<sup>18)</sup> 본 절은 2016년도 2학기부터의 교양 「중국어」 CQI 및 5년간 「중국어」를 강의했던 교원과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실제 교과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응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살펴보면 말하기 위주의 수업 방식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큰소리 학습법’을 적용한 결과 실제 말하기뿐만 아니라 발음, 듣기까지 훈련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특히 사항으로 ZOOM을 활용한 비대면 강의로 100% 운영된 2020년에서 2021년까지 2년 간 학생들의 만족도가 최상을 기록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ZOOM 회의실, 소그룹 회의실을 통해 말하기 연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대면 강의보다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져 학습 효과가 높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다음 장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문화 병행 교육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쉬는 시간에 중국 노래를 틀어주고 사이버캠퍼스를 통해 중국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관련

18) 학생들의 강의평가는 수업의 난이도, 내용과 방법에 대한 관심과 흥미 유발 여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제고, 교수의 수업운영방식 및 강의진행방식, 강의교재나 강의 자료의 효율성, 교수자의 전문성, 과제와 성적의 공정성, 전체적인 만족도 등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에 대해 교수는 강의에 대한 자체 평가를 내리고 이전강좌 대비 개선점 및 종합적 강의 개선 방안을 작성한다.

영상 콘텐츠나 추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어 흥미로웠으며, 중국의 차를 수업 시간에 직접 맛볼 수 있어 기억에 남는다는 답변도 있었다. 교수 역시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로 각 영역을 두루 다루려 노력했다. 다만 영상 강의 활용이 너무 많아 불만이라는 응답도 동시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공정한 평가 여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경향을 보였다. 중국어를 이미 배운 학생들도 수강하고 상대평가로 성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입문자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충남대의 경우 「중국어」 다음 수준의 연계 교과목이 없어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제한되며, 기 학습자들이 학점을 쉽게 취득하기 위해 수강하는 것을 막을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수는 1-2주, 길게는 4주까지 발음과 성조를 집중교육하고, 교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최대한 간극을 줄이려 시도했다. 즉, 본래부터 잘 했던 사람이 아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공지하여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불공정함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교수의 경우, 우선 과도한 수강인원 때문에 개별 지도가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2002년 1학기부터 2022년 2학기까지 충남대학교의 1개 분반 당 평균 수강인원은 44.42명이다. 그중 2003년 2학기는 1개 분반 당 평균 수강인원이 71.75명에 달했으며, 현재까지 기준 정원 50명을 넘는 학기는 총 12개 학기였다.<sup>19)</sup>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수강정원을 하향 조정해 각 분반 당 수강인원을 줄이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반영이 잘 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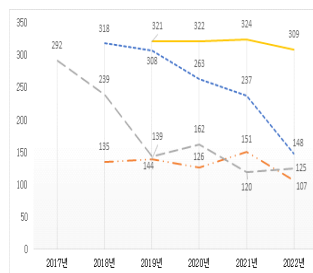
다음으로 교수들은 수강생의 학과, 학년, 학습 정도가 다양해 이를 「중국어」 수업 하나로 아우르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지

19) 2002년 1학기 64.2명, 2002년 2학기 52.2명, 2003년 1학기 64.5명, 2003년 2학기 71.75명, 2004년 1학기 54.2명, 2005년 1학기 52.8명, 2011년 2학기 60.5명, 2015년 1학기 68명, 2015년 2학기 59명, 2018년 1학기 67명, 2019년 2학기 54명, 2020년 1학기 52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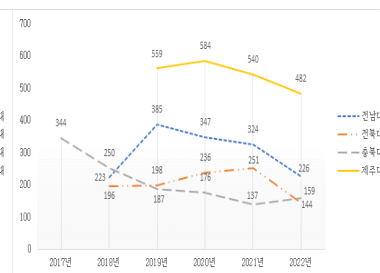
적한 바와 같이 학과 간 학생들이 중국어를 접근하는 방식이나 요구하는 영역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른 차별화가 따를 필요성도 있다.<sup>20)</sup> 그런데 충남대의 경우에는 중국어와 관련한 교양 교과목이 「중국어」 하나에 한정된다는 점이 학습과 교수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3) 기타 지방 거점 국립대와의 비교

본 절에서는 충남대 외 여타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교양 중국어 운영 현황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공통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의 여지와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본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를 주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나 정보 공개 여부 및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부산대는 제외되었다. 아래의 그래프는 지난 몇 년간 지거국에 개설된 중국어 과목의 수강인원 변화 추이를 나타내며,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프7 “교양 중국어 초급(입문) 교과 수강인원 변화”」



「그래프8 “교양 중국어 전 교과 수강인원 변화”」

20) 대표적으로 맹춘영, 「수요분석에 의한 예체능학과의 교양필수중국어 수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고찰」, 『중국어언어연구』,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18 ; 신경선, 「이공계 대학의 교양중국어 교육을 위한 연구 -학습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중국어언어연구』,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12 등을 들 수 있다.

「그래프7」은 교양 중국어 초급(입문) 단계 교과목의 수강인원 변화, 「그래프8」은 교양 중국어와 관련한 모든 교과목의 총 수강인원 변화를 나타낸다.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강인원이 대체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그래프로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초급 2단계 수업의 경우 하향세의 정도가 더욱 심했다. 제주대의 수강인원이 가장 많고, 기울기가 완만한 원인은 제2외국어(중국어/일본어/독일어/프랑스어) 중 최소 한 영역을 택하여 1, 2 단계의 강의를 모두 수강해야 졸업 요건이 충족되는 내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주대의 경우에도 2022년 현재 총 수강인원이 최저점을 찍고 있음에 유의할 만하다.

아래 표는 지거국의 교양 중국어 개설 현황을 몇 가지 항목으로 정리한 결과이다.

	증문과 개설 여부	개설 과목명	제2외국 어 교과 이수의무	수업 시수	증문과 학생 수강가능 여부	폐강 기준	수강 정원	평가 방식
강원대	x	생활중국어	x	3	o	20	50	상대
		인터넷 입문중국어						
경북대	x	중국어1	x	3	o	10	50	상대
		중국어2						
		비즈니스중국어						
경상 국립대	o	기초중국어 (대면/e러닝)	x	3	o	30	대면80, 교내형 199	상대
		생활중국어 (e러닝)					교내형 199,	P/F
		중국어발음 (e러닝)					교류형2 99	P/F
전남대	o	기초중국어	x	3	o	15	50	상대
		생활중국어			필수			

전북대	x	초급중국어 (1학기 개설)	x	3	중문과 지정분반	25	40	상대
		생활중국어 (2학기 개설)			o			
제주대	o	중국어1	o	2	o	25	40	상대
		중국어2						
충남대	o	중국어	x	3	x	30	50	상대
충북대	o	중국어 I	x	3	외국어나 국제화 영역필수	30	45	상대
		중국어 II						

우선 교양 중국어 관련 교과는 중문과에서 직접, 혹은 중문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 학교의 교양교육센터에서 개설하고 있다.<sup>21)</sup> 충남대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2-3개의 교양 중국어 교과를 1-6개 분반으로 개설하고 있었으며, ‘중국어’ 1-2’, 또는 ‘기초중국어’ - ‘생활중국어’ 처럼 초급 수준의 단계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제2외국어 영역 1, 2를 필수로 이수하게 하는 제주대의 경우는 2시수, 나머지는 3시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충남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는 중문과 학생들이 교양 중국어를 필수로 이수해야 하거나, 이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남대의 경우 중문과 학생들이 「생활중국어」를 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전북대는 중문과 학생들이 「초급중국어」를 반드시 수강하게끔 지정분반을 꾸준히 개설하고 있다.

폐강 기준은 10명-30명, 수강정원은 40-50명인데, 경상국립대의 경우 「기초중국어」 대면 수업은 80명, e러닝 과목(「기초중국어」, 「중국어발음」, 「생활중국어」)은 본교생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은 199명까지, 타대교류 학생들까지 들을 수 있는 수업은 299명까지 수강할 수 있다.<sup>22)</sup> 특히 e러닝 과목들은 여타 교과처럼 상대평가가 아니라 ‘Pass or Unpass’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매 학기 수강정원을 거의 100% 채우는데 일조하는 바가

21) 제주대의 경우 실질적인 개설주체는 중문과이고, 감독 및 관리는 교육혁신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22) 경상국립대 「기초중국어」 e러닝 과목의 경우 교류형은 없고, 교내형만 개설되었다.

있다고 여겨진다.

이외 분반 수업의 경우 대부분 교원들이 논의해 표준 강의안을 마련하거나, 교재를 통일하려는 등의 노력이 엿보였다.<sup>23)</sup> 다만 원어민 교수와의 팀티칭, TA 활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북대는 중문과 자체에서 중국어 관련 교과를 개설할 경우, 전북대는 원어민 교수의 한국어가 유려할 경우 원어민 교수의 중국어 과목 담당이 가능했다.

이상의 지거국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수강생 과다 현상이 우려되고 있고, 중고급으로 연계되지 않는 수준별 학습 문제가 존재하며, TA 및 관련 내척의 부재 등으로 학생의 개별 수준차 역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수강인원의 하락세 문제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때 제주대의 '제2외국어 영역의 필수 이수 규정' 시행과 경상국립대의 'e러닝 교과' 및 'Pass/Unpass 평가제' 도입이 유의미한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인다.

### 3. 교양 중국어 내실화를 위한 현실적 제언

#### 1) 대학 교양 중국어 활성화의 모범 사례

현재 국내 대학 가운데 이상적인 교양 중국어 제도를 대표하는 곳으로 서울대학교를 들 수 있다. 서울대 교양 중국어는 공통필수는 아니지만, 모든 학생들이 재학 중 제2외국어 영역 교양을 2과목 이상 들어야 졸업이 가능한 규정에 따라 일정한 수요가 보장되는 편이며, 운영 방법 또한 체계화되어 있다.<sup>24)</sup>

23) 제주대의 경우 강의 진도, 교과내용, 교재가 모두 통일되어 있다.

24) [https://ctl.snu.ac.kr/news/liberaledu\\_2022.pdf](https://ctl.snu.ac.kr/news/liberaledu_2022.pdf) 참조.

폐강의 경우 일반 교양수업 수강정원이 40명 이상이고 수강신청자가 9명 이하일 때, 수강정원이 40명 미만이고 수강신청자가 정원의 25% 미만일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교양 중국어는 수강정원이 20명이기 때문에 폐강 기준은 5명이 되는 셈이다.

또한 서울대 교양 중국어는 단계별 학습 과정이 잘 마련되어 있다. 「초급 중국어」 1, 2, 「중급 중국어」 1, 2, 「중국어 회화」 1, 2 등 교과 과정을 총 6단계로 세분화하여 학생들의 심화 학습을 고려하고, 수강생의 중국어 학습 경험 유무를 반영하며 수준의 편차를 줄이고자 했다.<sup>25)</sup> 이때 동일한 단계의 경우 강의계획, 평가 방법 및 수준을 통일해 분반 간의 편차 역시 고려하며, 「초급중국어」 1을 제외한 나머지는 절대평가제를 도입하여 수강생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서울대 교양 중국어는 원어민과의 팀티칭, 조교(TA) 활용을 통해 교수자들은 수업 준비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학생들은 보다 다양한 경험으로 해당 외국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보조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초급 중국어의 경우 과목당 한국인 교수 1명이 본 강사로서 매주 3시간 주수업을 담당하고, 원어민 랩 강사(주로 대학원생 가운데 선발)가 주1회 랩 수업을 진행한다. 수강생이 10명 이상이면 랩 강사 2명이 배치되며, 본 강사가 원할 시 한국인이나 외국인 TA를 학기 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대학 교양 중국어 수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교양 필수과정으로의 지정, 수업 시수 확대와 적정 인원의 반 편성, 단계별 교과과정 개설, 팀티칭 제도 및 교실/교실 밖 수업 등 다양한 교육방식, 절대평가나 완

25) 이때 ‘제2외국어 교과목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강 제한 대상을 확인하고 수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강부적격자로 분류되어 성적이 “F” 처리된다.’라고 분명히 명기해둠으로써 매 과정별 ‘수강 제한 대상’을 분명히 하고, 해당 외국어 교과목의 역수강을 금지하며, 해당 외국어 교과목의 동시 수강을 금지하여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수준차로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면이 보인다.

<https://liberaledu.snu.ac.kr/node/85> 참조.

화된 상대평가 제도 도입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하고 있다.<sup>26)</sup> 따라서 서울대의 사례는 비록 제도와 시행 과정 사이에서의 괴리가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지적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책이 실현된 모범 사례임은 분명하다. 비록 서울대도 타대와 마찬가지로 근래 수강인원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수업의 질과 단계별 학습의 기회가 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미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 공통의 문제점들이 명확히 제기되고, 다양한 대응책까지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양 중국어 교과목의 문제점은 여전히 진행형인 경우가 많다.<sup>27)</sup> 본고에서 일단 ‘현실의 벽’ 정도로 정의해 두고자 하는 대내, 대외적인 복합요인들로 인해 외국어 교양 수업을 제도적으로 특화하려는 학과, 단대, 본부 차원의 시도와 노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황은 이제 각 대학에서 중국어 교양 수업의 ‘현실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대안들을 활용할 필요성을 방증한다.

또한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중 감정이 극화되면서 대학의 중국, 중국어와 관련한 과목 개설 및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sup>28)</sup> 이러한 현실 역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본디 교양 교육의 목표는 ‘교양에 대한 관심과 탐색’, ‘재미와 감동’, ‘교양지식’인데,<sup>29)</sup>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26) 강창구, 「대학 교양중국어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세한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 제63집, 중국인문학회, 2016, 135-158쪽 참조, 김선아, 「대학 교양 중국어 활성화를 위한 제요건」, 『인문학연구』 제47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151-180쪽 참조, 임춘영, 「대학 교양중국어 교육의 과제와 방안-동아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학』 제62집, 대한중국학회, 2018, 89-105쪽 참조.

27) 기존 연구들을 참고해 보면, 사립대 역시 ‘많은 수강생 수’, ‘전공/단대 간의 편차’, ‘사전 학습 정도로 인한 편차’ 등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충남대의 경우, 중국 관련 교양 수업인 「중국테마기행」 역시 수강인원이 근래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 김정숙, 서연주, 「대학 교과목 분석을 통한 상호문화 이해 능력 함양 방안 및 교수법 제언」, 『한국문학과 예술』 제44집, (사)한국문학과 예술, 2022, 349쪽 참조.

29) 최문기, 「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전공수업과 교양수업의 비교」, 『교양교육연구』 제10집, 한국교양교육학회, 2016.

은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 발동 기제와 효력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양 중국어는 지중(知中)과 더불어 한중 상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장으로 발돋움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학기 단위 주제 중심 수업’, ‘블렌디드 러닝의 활성화’, ‘상호문화이해능력 강화 교육’이라는 세 가지 과업을 중심으로 보다 현실적인 대학 교양 중국어 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논해본다.

## 2) 교양 중국어 내실화를 위한 제언

### (1) 학기 단위 주제 중심 수업

본고에서 칭하는 ‘학기 단위 주제 중심 수업’이란 ‘한 학기 단위’라는 시간 제약과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집중 학습하는 수업을 의미한다. 이는 외국어 교육에서 최종 목표로 삼는 ‘의사소통 능력’ 강화까지의 부족한 수업 시수 문제, 학생 개인 간 수준차 문제를 해결하면서, 외국어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보다 높게 끌어 올릴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교양 중국어 수강생 대부분은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와 통합적 동기(integrative motivation)를 가지고 수업에 임한다. 전자는 취업이나 전공과의 연계성 등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당 외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이며, 후자는 외국어와 그 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과 의사소통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sup>30)</sup>

학생들은 교양 중국어를 전공 수업보다 부담 없고 흥미롭게 학습하길 바라며, 기본 회화와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켜 중국인과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거나 향후 중국 여행 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sup>31)</sup> 실제로 임연정

30) 김은희, 「교양 중국어 학습자의 학습동기, 태도, 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국인문과학』 제46집, 중국인문학회, 2010, 191-193쪽 참조.

31) 임재민, 「교양 중국어 수업설계와 적용」, 『중국언어연구』 제60집, 한국중국언어

(2020)이 학생들에게 교양 중국어와 관련해 개설 희망 교과목을 조사한 결과, ‘초급 회화’가 69.5%로 가장 높았고, ‘여행중국어’가 39.7%로 그 뒤를 이었다.<sup>32)</sup>

현재 많은 대학에서 중국어 관련 교양 교육은 ‘초급 중국어’를 위주로 개설하고 있다. 이는 현행 중·고등학교 외국어 교육에서부터 중시되고 있는 ‘생활 밀착형 의사소통중심 주제’ 학습과 동일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언어 형태나 구조를 이해하는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을 교육할 것이 아니라, 의미와 기능을 강조하는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on competence)을 강조하는 식이다.

다만 외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인사말, 자기소개부터 장소 묻기, 날짜나 요일 묻기, 음식 주문하기 정도에 그치는 ‘초급’ 수준으로는 ‘의사소통 능력’을 제대로 갖추기에 쉽지 않다. 비전공자의 경우 그 이상의 도약이 더욱 용이하지 않은 셈이다.

근래 대학 교양 중국어를 수강하는 학생들 가운데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이미 중국어를 접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sup>33)</sup> 그들이 불필요한 초급 중국어를 재학습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설사 재학습으로 인해 기초 의사소통 능력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급이나 고급까지 연계가 되지 못하는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를 고려하여 ‘여행’과 같은 특정 주제의 ‘초급 회화’ 구사를 목표로 하는 교양 중국어 수업을 제안해 본다. ‘한 학기 단위’라는 시간 제약을 극복하면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회화 학습에 집중하는 것이다.

학회, 2015, 303-354쪽 참조

32) 임연정, 「대학 교양중국어 학습자의 학습목표 및 교과목 수요 분석 연구」, 『중국어 교육과연구』 제32호,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20, 205-208쪽 참조.

33) 이효영, 「학습자 중심 교양중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교육과정 현황 조사 및 학습자 요구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어학』 제59집, 대한중국어학회, 2017, 191쪽 참조.

현재 출판된 중국어 도서 중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제작 출판된 ‘목적서’ 가운데 실무나 관광 분야에 관련된 단행본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한중간의 교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고, 중국어 학습자들 역시 양국 간 교류가 주로 일어나는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sup>34)</sup>

또한 MZ세대는 중국에 반감을 보이지만 동시에 마라탕과 같은 중국 현지 음식을 좋아하고, 해외여행 목적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행경비인 것을 고려하면,<sup>35)</sup> 초인접국으로서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관광 목적지라 할 수 있다. 마침 중국도 2023년 1월 8일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강제 격리를 해제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중국과 한국 간의 인적 왕래가 과거 2, 3년 전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학기 단위 주제 중심 수업’은 중국 현지 여행, 중국 음식 등 수강생이 흥미를 느낄만한 문화 관련 콘텐츠를 주제로 설정하고, 출국 준비부터 유명 관광명소 방문, 맛집 탐방, 쇼핑 등 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상황에 학생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주제 하에 한 학기 단위 집중학습은 어떠한 주제를 지정하는가에 따라 학생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학습자들의 흥미를 고취할 수 있으며, 상황별 맞춤형 중국어 표현들은 기 학습자와 입문자의 수준 격차 또한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에 학기 단위 주제 중심 수업은 교양 중국어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4) 중국어 교재 목적서 가운데는 여행이나 레저에 관련된 단행본이 43.5%로 가장 많으며 비즈니스, 면접, 무역, 호텔, 경제, 카지노, 서비스, 마케팅, 통상, 광고, IT, 금융, 패션, 세무 등 실무에 관련된 단행본도 31.7%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경, 「한국의 중국어 교재 분포와 개발 현황 분석」, 『중국어교육과연구』 제28호, 한국 중국어교육학회, 2017, 232-233쪽 참조

35) <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187> (2023년 1월 7일 검색.)

## (2) 블렌디드 러닝의 활성화

1990년대 이후 외국어 교육의 대세로 자리매김한 e러닝은 학습자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면대면 상호작용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학습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e러닝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새롭게 제안된 교수법이 바로 블렌디드 러닝이다. 다시 말해 블렌디드 러닝은 전통적인 면대면 강의실 수업과 e러닝의 장점을 혼합시킨 수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36)</sup>

회화 위주의 「중국어」 수업 성격상 블렌디드 러닝은 기능의 ‘수행’을 위한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대면 수업과 ‘지식’의 학습을 위한 온라인 수업으로 이원화 시도가 가능하다.<sup>37)</sup> 대면 수업을 통해 교수와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중국어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해당 중국어뿐만 아니라 중국, 중국인 등에 대한 정보까지 집중적,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이때 온라인 수업을 대표하는 ‘e러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교수자가 업로드한 영상 콘텐츠를 학생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시청하는 방식을 떠올린다. 교수자는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강의를 통해 시간 제약으로 인해 수업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보다 증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을 학생들이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문화와 사회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나 영화 일부 등을 영상 콘텐츠로 다루거나, 연습문제 풀이나 중국어 간체자 쓰기 훈련 등을 시도하는 것이다.

36) 정숙경, 「대학 사이버 영어수업의 효과적인 블렌디드 수업 모형에 대한 연구」,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3권3호,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2010, 255쪽 참조, 임연정, 「블렌디드 러닝 기반의 교양중국어 교육이 핵심역량 향상 및 인식에 미치는 영향」, 『중국어문학논집』 제133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22, 207쪽 참조.

37) 박찬욱, 「사례연구를 통한 블렌디드 러닝 기반의 중국어 회화수업 설계」, 『중국어 교육과 연구』 제14호,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11, 17-18쪽 참조.

그런데 지난 2019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새로이 대두한 온라인 수업 방식이 있는데, 바로 ‘실시간 비대면 강의’이다. 충남대는 부득이 교양 중국어의 모든 과정이 실시간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평가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수자의 역량이나 팬데믹 상황 등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실시간 비대면 강의의 강점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수강생의 과밀 현상에 따른 여러 불편한 상황이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강의실 대면 수업에서는 과다 수강인원으로 인해 상호작용과 개별 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실시간 비대면 강의에서는 한 화면에서 학생들의 이름, 얼굴, 나아가 입 모양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한다.

듣기와 말하기 과정이 특히 중요한 초급 중국어 교육의 장에서, 실시간 비대면 강의는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 우선 화면과 스피커를 통해 교수와 학생이 서로의 입 모양과 소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즉각적인 개별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대면 수업에서 발생하는 원거리 학생과의 소통 문제를 완전히 차단해준다. 또한 학생의 이름도 얼굴과 함께 노출되기 때문에 교수가 학생을 지명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뿐더러, 수업 내 적절한 긴장도 유지가 가능하여 학습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ZOOM 등의 경우 소회의실을 활용하여 개별, 혹은 소그룹 집중 지도가 가능하며, 녹화기능을 활용하면 수업이 끝난 뒤에도 언제든지 학생들이 반복 학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처럼 실시간 비대면 강의의 경우, 시각적·청각적 상호소통이 특히나 원활해야 하는 초급 중국어 수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장한다. 다만 대부분의 강의가 대면 강의로 전환된 요즘, 중국어 수업 앞뒤로 다른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는 수업에 제대로 임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 환경이 안정적으로 갖추어져 있는지 충분한 사전 점검이 필요할 것이며, 실시간 비대면 강의를 전면 내세우기보다

는 대면 강의, 영상 콘텐츠 강의와 함께 적절하게 배치·진행하는 방식이 교양 중국어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상호문화이해능력 강화 교육

외국어교육 중 문화 연계의 중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되어왔다. 외국어교육에서 목표 언어권의 문화를 연계하는 것이 실제로 외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sup>38)</sup> 학계에서는 문화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부터 어떠한 문화적 요소를 선택할지, 이를 어떻게 교수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상호문화이해 능력’은 대학교육에서 진정한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기본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정의는 ‘자국과 타국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구별하여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정도로 설명될 수 있다. 이때 수용 민감성 정도가 클수록 타 문화와의 상호작용이 수월하므로, 나라 간 교류가 다방면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전 지구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더욱 중시되고 있다.<sup>39)</sup>

일반적으로 교양 외국어 수업에서 문화 교육은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강화하려는 도구적 목적을 가지고 활용된다. 이에 거시적 차원에서 해당 국가를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몇몇 문화적인 측면에 대해 ‘단편적’으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충남대의 경우 주당 3시수의 교양 중국어 시간 가운데 30분 이상을 중국의 각종 사회문화 현상 및 대중문화를 소개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38) 선곡유화, 이영선, 「외국어·다문화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다문화태도와 외국어 능력에 미치는 효과」, 『일본어문화』 제28집, 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14, 413-414쪽.

39) 이원희,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과 상호문화 교육 연구」, 『2021년 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21, 담화·인지언어학회, 196쪽 참조.

이는 분명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유효한 면이 있다. 다만 상호문화이해능력 강화를 고려한다면,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는 방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sup>40)</sup> 상술했듯 한중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결국 중국어에 대한 학습동기를 외재적으로든, 내재적으로든 진작시키는 데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상호문화이해능력’의 관점에서 수업의 내실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호문화이해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방법은 먼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보면서 그 문화를 발견하고 수용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상대국을 피상적으로 아는 단계에서는 서로 간의 차이점을 먼저 주목하게 되지만, 결국 본래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공통성, 동질성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sup>41)</sup>

이에 근래 ‘반중’, ‘혐중’이라는 사유는 중국과의 관계에 애초부터 선을 긋고 이질성, 차이점에만 주목한 까닭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사 이래 초인접국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전 영역에 걸쳐 교류를 이어왔기 때문에 동질성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국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과 한국은 20세기 초중반 이후 서로 다른 정치경제 체제 아래 놓임으로써 오히려 그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보를 나열식으로 제공하는 대신, 중

40) 이는 결코 충남대학교 수업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실제로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학습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요구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외국어수업 중 문화학습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요구 문항에서 현재의 문화학습이나 내용, 방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고 있다. 민춘기,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학습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요구 분석」, 『언어학』 제22집,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15, 251-275쪽 참조.

41) 장한업, 『이제는 상호문화 교육이다 - 다문화 사회의 교육적 대안』, 교육과학사, 2014, 150-157쪽, 현남숙, 김영진, 「상호문화적 사유방식의 함양을 위한 읽기/쓰기 교육」, 『작문연구』 제28집, 한국작문학회, 2016, 255-256쪽 참조.

국과 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사회적 이슈를 주제 삼아 우선 우리의 상황과 입장은 어떠한지를 주시시키고, 이어서 중국 상황은 어떠한지, 중국 사람이 왜 그렇게 사유하고 행동하는지, 우리와 어떻게, 왜 다를 수밖에 없는지,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등, 보다 실질적이고 근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문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상호문화이해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학습동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학생들은 해당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자국에 대한 이해 또한 깊어져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마인드’ 자체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4. 나가며

21세기에 들어 중국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더욱 뻗어 나가면서 대학 교양 수업 가운데 중국어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활발해졌다. 교양 중국어 수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부족한 수업 시수, 과밀 학급, 학생 수준 및 전공의 다양함, 원어민 교수의 활용, 상대평가 등의 문제를 지적했으며, 그 대안으로 교양 필수과정으로의 지정, 수업 시수 확대, 단계별 교과과정 개설, 팀티칭 제도 및 완화된 평가제도 도입 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는 교양 중국어의 현실적인 운영상황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요원한 경우가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교양 중국어 수업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학기 단위 주제 중심 수업’, ‘블렌디드 러닝’의 활성화, ‘상호문화이해능력 강화 교육’을 제안하였다. 우선 ‘학기 단위 주제 중심 수업’은 한 학기 동안 ‘여행’이나 ‘음식’ 등의 대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해 회화 중심으로 집중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는 한정된 수업 시수와 학생의 수준차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블렌디드 러닝의 활성화’는 e러닝의 강점과 강의실 대면 강의의 강점을 취합한 방식의 수업을 시도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운영된 실시간 비대면 강의가 초급 중국어 수업의 과밀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부각되면서, 기존의 대면·비대면 강의 방식과의 적절한 배합으로 수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상호문화이해 능력 강화’ 역시 교양 중국어 수업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반중’, ‘혐중’ 감정이 두드러진 근황을 참작한다면 중국, 중국인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사유의 접근이 어학 수업에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 교양 중국어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내실화’를 위한 현실적 제언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술한 세 가지 방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업 설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약할 것이다.

## 參考文獻

- 강창구, 「대학 교양중국어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세한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 제63집, 중국인문학회, 2016.
- 김선아, 「대학교양 중국어 활성화를 위한 제요건」, 『인문학연구』 제47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 김은희, 「교양 중국어 학습자의 학습동기, 태도, 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국인문과학』 제46집, 중국인문학회, 2010.
- 김정숙, 서연주, 「대학 교과목 분석을 통한 상호문화이해 능력 함양 방안 및 교수법 제언」, 『한국문학과 예술』 제44집, (사)한국문학과 예술, 2022.
- 민춘기,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학습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요구 분석」, 『언어학』 제22집,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15.
- 박찬욱, 「사례연구를 통한 블렌디드 러닝 기반의 중국어 회화수업 설계」, 『중국어 교육과 연구』 제14호,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11.
- 박혜원, 「대학 교양중국어 수업 활성화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0.
- 선국유화, 이영선, 「외국어·다문화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다문화태도와 외국어 능력에 미치는 효과」, 『일본어문화』 제28집,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14.
- 이미경, 「한국의 중국어 교재 분포와 개발 현황 분석」, 『중국어교육과연구』 제28호,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17.
- 이원희,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과 상호문화 교육 연구」, 『2021년 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담화인지언어학회, 2021.
- 이효영, 「학습자 중심 교양중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교육과정 현황 조사 및 학습자 요구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학』 제59집, 대한중국학회, 2017.
- 임연정, 「대학 교양중국어 학습자의 학습목표 및 교과목 수요 분석 연구」,

- 『중국어교육과연구』 제32호,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20.
- 임연정, 「블렌디드 러닝 기반의 교양중국어 교육이 핵심역량 향상 및 인식에 미치는 영향」, 『중국어문학논집』 제133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22.
- 임재민, 「교양 중국어 수업설계와 적용」, 『중국어언어연구』 제60집,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15.
- 임춘영, 「대학 교양중국어 교육의 과제와 방안-동아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학』 제62집, 대한중국학회, 2018.
- 장한업, 『이제는 상호문화 교육이다 - 다문화 사회의 교육적 대안』, 파주: 교육과학사, 2014.
- 정숙경, 「대학 사이버 영어수업의 효과적인 블렌디드 수업 모형에 대한 연구」,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제13집,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2010.
- 정현선, 「효율적인 교수 학습 방법과 미래지향적인 영어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초등영어 교사의 인식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21.
- 최문기, 「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전공수업과 교양수업의 비교」, 『교양교육연구』 제10집, 한국교양교육학회, 2016.
- 현남숙, 김영진, 「상호문화적 사유방식의 함양을 위한 읽기/쓰기 교육」, 『작문연구』 제28집, 한국작문학회, 2016.
- [https://ctl.snu.ac.kr/news/liberaledu\\_2022.pdf](https://ctl.snu.ac.kr/news/liberaledu_2022.pdf)
- <https://liberaledu.snu.ac.kr/node/85>
- 이동환, 「여론 속의 여론,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제137-1호: 2021 한국리서치 13차 정기조사(7월 1주)-국정지표조사」, 『한국리서치』 2021, 25-29쪽 참조.(<https://hrcopinion.co.kr/report?vid=210> 2023년 1월 9일 검색.)
- <https://www.ethnologue.com/guides/most-spoken-languages>
-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2/06/29/negative-views-of-china-tied-to-critical-views-of-its-policies-on-human-rights/>
-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2/06/29/across-19-countries-more-people-see-the-u-s-than-china-favorably-but-more-see-chinas-infl>

uence-growing/

<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187> (2023년 1월 7일 검색.)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48646632430600> (2023년 1월 9일 검색.)

## Abstract

Exploring the current operation status and actual improvement plan for the liberal arts course of Chinese language in University  
- Focusing on liberal arts subject 「Chinese」 of Chungnam University

Sung, Na Young · Seo, Yeon Ju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university liberal arts subject Chinese operations and to explore realistic suggestions for 'improvement plan'. In the 21st century, as China's influence expanded further around the world, discussions on how to revitalize Chinese in university liberal arts classes also became active. However, the previously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were often far from feasible considering the realistic operation situation of university liberal arts subject Chines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the operation status of university liberal arts subject Chinese, focusing 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d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best practices of other local national universities. Based on this, in order to improve liberal arts Chinese classes, we propose "theme-oriented classes for each semester," "activation of blended learning," and "strengthening education on mutual cultural understanding." This paper will lead to a follow-up study on how the above-described three measures can be practically applied to the design of liberal arts Chinese classes.

**Key words** : liberal arts subject Chinese, activation, improvement plan, theme-oriented classes for each semester, blended learning, mutual cultural understanding skills.

투 고 일 : 2023. 1. 10. / 심 사 일 : 2023. 1. 15. ~ 2023. 2. 15. / 게재확정일 : 2023. 2. 20.

